

'23년 동계 항공편 스케줄 확인하고 타세요

- 10월 29일부터 시작되는 동계기간 정기편 일정 확정... 항공사별 누리집에서 확인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'23년 동계기간* ('23.10.29.~'24.3.30.) 국제선·국내선의 정기편 항공운항 일정(스케줄)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.

* 일광절약시간제(daylight saving time)에 따른 운항시각 변동 및 계절적 수요에의 탄력 대처를 위해, 전 세계 대부분 국가는 1년에 2차례(하계, 동계) 항공 운항 일정을 조정

- 국제선은 '23년 동계기간 중 최대 221개 노선을 주4,300회(왕복) 운항할 예정으로, 운항횟수는 지난 9월 평균 주3,823회 보다 주477회(12%) 증가한 것이며, 코로나-19 이전인 '19년 평균 주4,619회의 93%까지 회복이 기대된다.

- 특히, 동계기간 수요가 많은 일본(+ 108회), 동남아(+ 152회), 대양주(+ 8회) 노선이 증편('23.9월 대비)되었으며, 인천-브로츠와프(폴란드), 김해-푸꾸옥(베트남), 제주-허페이(중국), 청주-장자제(중국), 무안-나트랑(베트남) 등 신규 정기노선도 개설된다.

- 국내선은 코로나-19 이전의 99%(주 1,815회)로 운항할 계획이다.

- 29일부터는 사천-제주노선이 재개되어 내륙노선 8개, 제주노선 11개, 총 19개 국내 정기노선을 운항하는 한편, 원주, 포항, 여수 등 소규모 지방공항은 선호도가 높은 시간대로 항공 일정을 조정하여 이용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.

-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“국민들의 국내외 이동 수요 증가에 맞춰 항공사의 증편을 적극 지원”하였다면서, “국민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항공 이동은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항공정책관	책임자	과 장	김동현 (044-201-4207)
			과 장	김영혜 (044-201-4219)
	국제 항공과	담당자	사무관	성경림 (044-201-4215)
			주무관	장휘랑 (044-201-4220)
	항공산업과	담당자	사무관	최진호 (044-201-4224)
			주무관	이금주 (044-201-4222)

대한민국
정책브리핑



참고**'23년 동계 국제선 신규 정기노선 및 국내선 세부노선**

※ 아래 계획은 동계기간 중 항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

1. 국제선

국내공항	주요 신규정기편
인천	· 가고시마, 오카야마, 니가타(이상 일본), 옌청, 구이린(이상 중국), 시엠립(캄보디아), 브로츠와프(폴란드)
김해	· 마쓰야마(일본), 푸꾸옥(베트남)
제주	· 난통, 정저우, 허페이(이상 중국)
청주	· 장자제(중국)
무안	· 오사카(일본), 장자제(중국), 타이페이(대만), 나트랑(베트남), 방콕(태국)

* '23년 하계에는 정기편이 없었으나, '23년 동계에는 운항하는 정기 노선

2. 국내선

구분	세부 노선
내륙노선	김포-김해, 김포-울산, 김포-광주, 김포-사천, 김포-포항, 김포-여수, 인천-김해, 인천-대구
제주노선	제주-김포, 제주-김해, 제주-대구, 제주-광주, 제주-청주, 제주-군산, 제주-여수, 제주-사천, 제주-울산, 제주-원주, 제주-포항